



이방인이 또 다른 이방인에게 즉흥적 설치물에 불안한 정주

신예선 개인전 '한림 켈릭 소환'
우연적이고 취약한 건축공간들
예멘 난민 등에 작가 입장 대입

제주시 한림읍에 한림수직을 세우는 등 아일랜드 출신으로 제주에서 생을 마친 맥그린치 신부, 근래에 제주로 밀려들며 이슈가 되고 있는 예멘 난민, 서울 태생으로 제주에 머물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신예선 작가에게 시간적,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그 둘의 존재가 달리 보이지 않는다. 낯선 땅에서 지역의 구성원으로 적응해야 하는 고단한 여정을 거쳤거나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제주도 한림면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스페이스 예나르 갤러리에서 '한림 켈릭 소환'이란 이름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섬유미술을 전공하고 패션, 니트를 공부한 작가는 갖가지 재료를 이용해 정주를 향한 불안과 모호함을 보여준다. 전시장에는 다소 즉흥적이고 연극적으로 구성된 거대한 텐트와 구조물이 자리잡고 있다. 가느다란 골조 위에 에어백과 박스테이프로 구조물을 만들고 또 다른 골조에는 아일랜드 니트를 덧 씌웠다. 거꾸로 세워진 국기 깃대에는 호일담요가 담장을 만든다. 금빛의 반짝임은 어떤 종류의 힘과 권위를 상징



신예선의 '국기란 무엇인가'.

하지만 그 반짝임은 싸구려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소풍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넝쿨 줄기, 박스 테이프, 가발, 아일랜드 전통 편물인 아란 니트 같은 재료들이 재구성되면서 만들어지는 건축적인 공간들은 비영속적이

고 우연적이면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작가는 과거 아일랜드의 이방인에, 예멘 난민에 자신의 입장을 대입하며 정주적 결과를 찾아내지만 흔들리는 모습을 은유해낸다. 전시는 10월 3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72-4280. 전선회기자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고운 합창 하모니로

제주이주민합창축제
6~8일 제주아트센터
연·노형여성합창단도
9일 두번째 정기공연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만나 아름다운 화음을 빚어내는 합창 무대가 잇따른다.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주아트센터에서는 제주이주민합창축제가 열린다. 한국문화예술회관합회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선정 사업으로 이주민과 제주 원주민의 갈등을 합창음악을 통한 소통으로 풀어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지난 5월 창단된 제주이주민합창단 '제주아트파이어'을 비롯 제주남성합창단, 그루터기중창단, 희빈합창단, 맑은소리합창단, 장애인 어울림합창단 '따앗', 탈북여성합창단 '채송화의 꿈 합창단', 제주부부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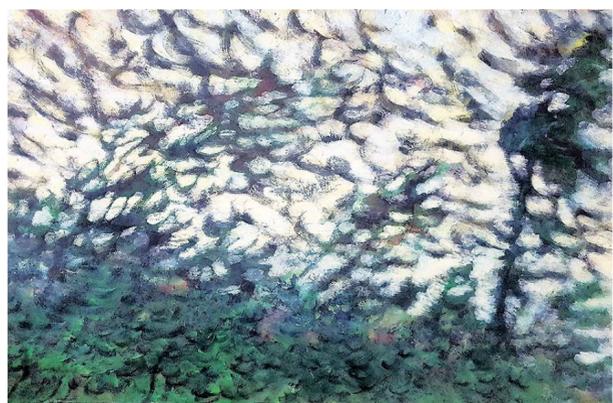
단, 신성동문화합창단 등 20여개 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소프라노 정혜민, 테너 김석철, 제주비비스티티너, 중국 악기연주, 아프리카 전통타악연주단의 특별 무대도 예정되어 있다. 공연 일정은 6~7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8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 5세 이상 입장 가능하다. 관람료 무료. '왜이 낫(Why not!) 연·노형여성합창단(단장 정미정)'은 이달 9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두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토요일 저녁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연습을 이어온 단원들은 내재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관객들과 경정의 힘을 나눌 예정이다. 배서영씨의 지휘 아래 '자비로우신 예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넬라 판타지아', '마이 웨이', '가을 밤', '제주도 이야기', '여왕벌의 비행', '가을이 오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등 다채로운 빛깔의 음악을 들려준다. 전선회기자

마음의 풍경, 거리의 풍경, 사라지는 풍경

오민수 '산수이상-노닐다'
김경환 '제주섬+돌+숲' 전
변혜정 도자그릇전 '흔적'
서승환 '길 위에서 그리다'

마음의 풍경에서 거리의 풍경까지 젊은 작가들이 담아낸 제주 이야기가 전시장 등에서 펼쳐진다.

오민수 작가는 예술공간 이아 기획대관전으로 '산수이상(理想)-노닐다'전을 열고 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유년 시절을 보낸 서귀포에 돌아와 새로이 보게 된 제주 풍광을 담은 오민수 작가는 수목산수만이 아니라 조형언어의 폭을 넓히려는 실험 작품을 내놓았다. 전시는 이달 15일까지 이아갤러리 2에서 이어진다. 문의 064)800-9333.



오민수의 '산수이상-바람'.

파스쿠찌 탐동점에서 김경환 작가의 '제주 섬+돌+숲'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선 '조천만세동산숲', '제주 돌 허들링', '섬 속의 섬' 등 회화 작품 10여점을 통해 예술적 감각으로 다시 발견한 제주의 모습을 전한다. 바다 주변에서 발견한 건축물 폐자 등을 캔버스에 그려냈다. 10월 3일(오전 8시 30분-밤 12시)까지. 010-

3352-1205. '흔적'이란 이름을 단 변혜정 도예전은 제주도 연복로 연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꽃을 모티브로 빚은 그릇 작품들은 손끝의 감각을 이용해 순간적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탄생했다. 작가는 "흙의 물성을 이용한 자유로운 율동과 흙의 원초적인 질감을 개성있게 표현해냈다"고 했다. 전시는 7일까지. 010-2693-0113. 청년 작가 서승환씨는 3년 전부터 서귀포예술시장 프리마켓에 참여하며 마주친 거리 풍경과 사람들로 '퍼스트, 스트리트 아트 길 위에서 그리다'전을 연다.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연갤러리. 010-6561-1983. 전선회기자

민병훈 감독 데뷔 20주년 영화문화예술센터 특별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달 6일부터 영화문화예술센터 7관에서 2000년대 한국 영화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온 민병훈 감독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펼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민병훈 감독의 데뷔작인 '벌이 날다' (1998)를 시작으로 최신작 '황제' (2017), '설계자' (2017)까지 일반상영관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작품들을 모아 총 10편을 상영한다. 민 감독은 현재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휴먼 멜로 '기적'을 촬영하고 있다. 특별전은 이달 29일까지 금·토 오후 7시에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전화(064-735-0626)나 홈페이지(jejumovie.kr)를 이용하면 된다. 전선회기자



신작 '태러블칠드런'을 선보이는 살거스.

한때 어린 아이였던 시절을 기억하며

다국적무경계예술팀 살거스
신작 '태러블칠드런' 공연
연극·파이어퍼포먼스 결합

시간을 세는 듯 박혀있는 말뚝들, 그 사이에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편안히 잠들어 있는 3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들의 맑고 순수했던 영혼은 어른이 되어서도 살아있을까.

제주에서 활동하는 다국적무경계예술단체 살거스가 생명의 탄생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담아낸 신작 퍼포먼스 '태러블칠드런'을 들고 잇따라 공연을 펼친다. 이달 7일 오후 8시 맥파이 양조장(제주시 동회천1길 23), 8일 오후 8시 플레이스 캠프 제주(서귀포시 성산읍 동류암로20)가 그

곳이다. '태러블칠드런'은 시각적 효과에 중점을 둔 단순한 파이어퍼포먼스를 벗어나 연극, 음악, 구조물 등이 결합된 복합퍼포먼스로 만들어졌다. 3명의 캐릭터를 따라 잃어버린 꿈을 그려볼 수 있는 이 작품에서 붉은 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무대 위 독특한 구조물은 관객들을 상상속의 세계로 이끈다. 가르시아 루벤이 연출과 시나리오를 맡고 히로시게 코에이, 야마다 아스카, 가르시아 루벤이 퍼포머로 나선다. 2013년 창단한 살거스는 프랑스, 일본, 한국의 아티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 각각의 예술적 재능과 경험을 살려 연극, 저널리즘, 무용, 마임 장르를 복합시킨 작품을 발표해왔다. 문의 064)755-8415. 전선회기자

변혜정 도예전 '흔적'.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지동시스템(조색기) 구비

특징 **접착강도가 가장 빠른 몰탈 (5mm이상)**

용도 **건축물보수/보강(특히 옥상 물 고이는 곳)**
콘크리트 페인 도로 보수 공사용 **기타 높은 강도 및 접착강도가 요구되는 공사**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통기성(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외벽(옥상, 외벽)**

* 소비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주사공처 · 건입동 현대아파트 · 외도 일우아파트 외)

한번 칠하면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외벽 방수페인트

칠만하면 100% 방수와 페인트칠을 한번에 (시간절약, 비용절약)

특징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용도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벽,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타일면 **벽돌면** **스톤면**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싱글지붕용 탄성도막 방수제

부식이 되어있는 싱글지붕을 칠만하면 방수되고 탄탄한 새지붕으로 바뀝니다.

노형 위더스빌라 12차 · 세일자동차 외



성지요양원



비치파크모텔



이도아쿠정빌딩(타일면)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